



태극전사, 북한과 무승부

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안컵 축구대회 한국과 북한의 경기에서 한국 김기희(5번)가 헤딩슛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 내내 공격을 주도했던 한국은 북한 골키퍼 리명국의 선방 퍼레이드에 막혀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김정미 '최우수 골키퍼'

권하늘 A매치 100경기

북한 위정심 MVP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수문장 김정미(인천현대제철)가 2015 동아시아안컵(EAFF) 축구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아안컵) 최우수 골키퍼에 올랐다.

동아시아안컵은 지난 8일 여자축구 마지막 경기인 중국-일본전을 끝으로 이번 대회를 마감하고, 개인 수상자를 발표했다. 최우수선수(MVP)에는 북한을 우승으로 이끈 위정심이 뽑혔다. 북한의 공격수 위정심은 중국과의 1차전에서 결승골을 포함해 2골을 터뜨리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최다 득점상에는 일본과의 2차전에서 두 골을 몰아넣고 한국전에서 두 썩기골을 넣은 북한의 주장 라은심(3골)이 선정됐다. 최고 수비상은 김남희(북한)가 받는 등 이번 대회 우승팀 북한은 4개 개인상 중 3개를 가져갔다.

최우수 골키퍼는 김정미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번 수상은 2005년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정미는 북한에 두 골을 내주는 했지만, 앞서 중국 및 일본전에서 '슈퍼 세이브'를 선보이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권하늘' 권하늘(부산 상무)은 북한과의 마지막 경기를 통해 한국 여자축구 사상 첫 A매치 100경기에 출전(한국 축구 기인)하며 축구사를 새로 썼다. 2006년 11월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대만전 A매치 데뷔 후 8년9개월만이다. /연합뉴스

아쉬웠다 남북대결

태극남자 준우승

돋보였다 신·구 조화

동아시아안컵, 북한에 0-2패... 박은선·지소연 등 공백 우려 씻고 선전

2015 동아시아안컵(EAFF)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윤덕여호가 귀국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한국은 전날 열린 북한전에서 0-2로 패했지만 강호 일본과 중국을 잇달아 꺾으며 2승1패로 북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05년 이 대회 우승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당초 캐나다 여자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일본(세계랭킹 4위), 8강에 오른 중국(14

위)을 비롯해 '강철 체력' 북한(8위)까지 모두 한국(17위)보다 세계랭킹에서 앞서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 대회였다.

공격의 핵심인 박은선(인천대교)과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신구 조화를 이룬 태극남자들은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여자월드컵 사상 첫 16강 진출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실빈은 월드컵에서의 부진을 털고 중국전에서 시원한 중거리슛을 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유영아의 부상으로부터 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이민아(이상 인천현대제철)는 왕성한 활동량과 드리블 능력을 선보이며 '스타 탄생'을 알렸다.

조소연과 전가을은 월드컵에 이어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실력을 재확인했고 '만언니' 골키퍼 김정미(이상 인천현대제철)도 든든히 골문을 지켰다. 이번 대회 선전으로 내년 2월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지역예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남은 기간 더욱 담금질을 해나갈 계획이다.

준우승을 이끈 윤덕여 감독은 "첫경기

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팀의 활력소가 돼 좋은 경기를 해줬다"고 평가했다.

윤 감독은 이날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출발 전부터 100% 전력을 구축하진 못해 걱정이 많이 됐다. 일본, 북한전은 부상 선수들이 회복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면서 "생각보다 선수들의 의욕이 넘쳤고 집념도 좋았다. 6월 여자월드컵이란 큰 대회를 치른 경험을 통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감독은 "이금민, 이소담, 장슬기 등이 나이는 어리지만 팀에서 큰 역할을 해줄거란 믿음이 있다. 이민아도 빼놓을 수 없다. 역할을 잘 해줬다. 앞으로도 대표팀이 더 많은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칭찬했다.

이번 대회에서 세대교체 희망을 봤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WK리그에 많은 선수층이 확보되지 못해서 새 선수를 발굴하기 쉽지 않다. 현장을 더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20세 이하(U-20) 선수들도 주시하고 있다"고 관심을 보였다.

윤 감독은 내년 2월 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지역예선을 앞두고 "내년 2월까지 공백이 있는데 연속성있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여자축구 A매치 기간이 11월에 있는데 WK리그가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박인비, KLPGA 우승이 더 어려워

14번째 도전에서도 우승 못해 이정은 삼다수 마스터스 제패



이정은(27·교촌F&B)이 4년 만에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우승하며 통산 5승째를 올렸다. 골프 여제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KLPGA 첫 우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정은은 9일 제주 오라곤트리클럽(파 72·6519야드)에서 열린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5억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박소연(23)과 동타를 이룬 이정은은 18번홀(파4)에서 연장전을 치러야 했다.

마지막 18번홀에서 약 2.5m 버디 퍼트에 성공했다면 우승컵을 가져갈 수도 있었던 이정은은 약 1.5m 버디 퍼트를 집어

넣어 우승을 확정했다. 2011년 8월 넵스 마스터스 이후 4년 만의 우승이다. 앞서 박소연이 먼저 버디 퍼트에 도전했으나 실패해 KLPGA 투어 첫 승 사냥에 실패했다.

2006년 KLPGA에 입회한 이정은은 2009년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첫승을 거둔 이후 통산 5승째를 기록했다.

박인비는 이날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를 치고 최종합계 2언더파 214타로 공동 8위를 기록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박인비는 LPGA 메이저 대회 4개를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의 위업을 달성했지만, 한국에서는 14차례 대회에 출전

해 아직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박인비는 1번홀(파3)부터 보기를 냈지만, 곧바로 2번홀(파4)에서 버디로 만회했다. 전날 트리플보기를 친 6번홀(파5)에서 보기를 냈다가 15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다시 균형을 맞췄다.

박인비는 지난 3일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직후인 4일 귀국하는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이번 대회에 나섰다. 첫날에는 버디만 5개 잡으며 공동 선두에 올랐지만, 2라운드에서는 올해 첫 트리플보기를 치는 등 주춤하며 공동 7위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기성용의 스완지, 첼시와 비겨

몽크 "기성용 큰 부상 아냐"

'디펜딩 챔피언' 첼시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15-2016시즌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 우승팀 첼시는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스완지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스완지시티 소속인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은 선발로 출전했으나 전반 41분에 오른쪽 다리 근육 통증으로 잭 코크와 교체됐다.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은 스완지시티가 올해도 시즌 첫 경기에서 첼시를 괴롭히며 2년 연속 '개막전 신데렐라'가 됐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15분 기성용의 묵직한 중거리슛 등으로 첼시 골문을 위협하며 기선을 잡는 듯했다. 그러나 선제골은 전반 23분 첼시 미드필더 오스카르의 몫이었다. 오스카르는 페널티 지역 바깥 왼쪽 대각선 지점에서 얻은 프리킥을 오른쪽으로 차넣어 1-0을 만들었다.

전반 29분 스완지시티의 미드필더 앙드레 아유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제페슨 몬테로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고미스가 헤딩슛으로 연결했고 이것을 첼시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가 쳐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 공이 아유의 앞으로 향했다. 그러나 불과 1분 만에 첼시의 두 번째 골이 나왔다. 첼시는 전반 30분 윌리엄이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로 올려려던 공이 스완지시티 수비수 페데리코 페르난데스의 발에 맞고 공중으로 뜨면서 그대로 스완지시티 골문으로 향했다. 이 행운의 골은 페르난데스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후반 10분 스완지시티 고미스가 쿠르투아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쿠르투아가 고미스를 넘어뜨려 퇴장을 당했고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이 페널티킥을 고미스가 직접 차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스완지시티는 이후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첼시를 몰아붙였으나 역전골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크리스티얼 팰리스는 이창용이 결장한 가운데 노리치시티를 3-1로 제압했다.

손흥민의 소속팀 독일프로축구 레버쿠젠은 2015-2016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014-2015 DFB 포칼 2라운드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발로 걷어차고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하며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날 3경기 출전 정지에 해당하는 마지막 경기였다. 같은 팀의 류승우가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됐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광양제철고, K리그 U18 챔피언십 정상 도전

오늘 울산현대고와 결승

전남 U18팀인 광양제철고가 2015 K리그 U18 챔피언십 정상에 도전한다.

전남의 광양제철고가 10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울산 18팀인 울산 현대고와 2015 K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전을

치른다. 한 달 여만의 리턴매치다. 전남은 지난달 5일 '2015 대교 눈높이 전반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에서 울산에 3-4 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전남은 3-0의 리드 속에 전반을 끝냈지만 후반 울산의 반격에 3-4 역전패를 기록했다. 전남은 한 달여 만에 성사된 리턴매치에서 실력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분위기는 좋다. 전남은 8일 진행된 준결승전에서 주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인천 대건고를 4-1로 제압했다. 전반 10분 기습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최병석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8분 최익진의 중거리 슛으로 경기를 뒤집은 전남은 후반 21분 김진성의 헤딩골, 후반 34분 김상현의 추가골로 4-1 승리를 장식했다.

울산은 서울 오산고와의 준결승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울산은 1-2로

뒤진 후반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서울 수비수의 자책골로 기사회생한 뒤 연장전반 9분 터진 이동경의 원발 프리킥으로 어렵게 결승에 진출했다.

전남 주장 최익진은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역전패하며 아쉽게 우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회 결승전은 SPOTV2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